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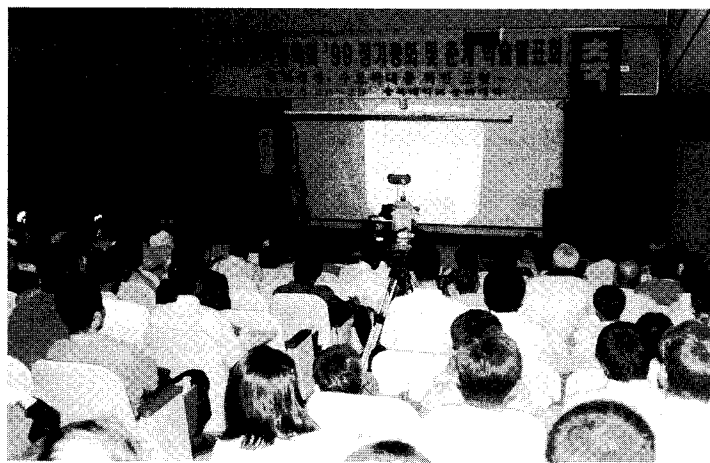
# 천마, 식품원료 사용제한 불합리 '천마생산·수요확대를 위한 포럼'서 문제제기

천마생산·수요확대를 위한 포럼 및 '99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가 5월28~29일 이틀간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천마의 다양한 효능과 민간요법 사례, 식품학적 이용가능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천마의 생산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천마재배농가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천마생산자협의회가 발족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98년 농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천여 농가가 천마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286t이 생산됐다. 그러나 소규모 조직간 재배기술, 판로,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전국단위의 생산자조직 활성화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천마는 무염록소의 난과 식물로서 공생균인 뽕나무 버섯균의 영양을 먹고 자라는 약초로서 예로부터 뇌신경 계통의 영양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인공재배가 극히 어렵고 산출량도 적어 극히 일부의 한방임상에만 적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천마의 인공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민간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민간요법에 의한



다양한 임상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연구관은 이날 포럼에서 '천마생산·유통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식품법상 천마는 독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농가소득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천마를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에서 독자적인 식품개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마를 이용 개발가능한 가공식품으로는 천마분말, 천마당과, 천마청, 볶음차, 생즙음료, 과립차, 천마술, 농축액기스 등 다양하다.

한편 이번 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충북대 박상일 교수의 회장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북대학교 농과대 최선영 교수가 신입회장으로 추대됐다. <회>

## “국내산 녹용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충남도는 국내산 녹용의 판로를 넓히고 외국산과 차별화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양에 '국내산 녹용 포장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녹용 시장은 러시아 호주등 외국산이 81%를 점유하고 있다.

포장센터는 청양 사슴영농조합 법인과 사육농가들이 연합, 국비와 도·군비 2억원 및 자가부담 3억원등 5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설립한다. 이곳에는 원료저장, 절단가공 및 소포장, 한약재 혼용포장등 기술적인 가공과 전문적 포장시설이 갖춰진다.

포장된 녹용은 9월 전안에 문을 여는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로 납품되며 물류센터는 규격 색깔등에 따른 품질별 등급화 작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 야생삼도 CITES 품목? 정부 대책마련 부심

러시아가 지난달 7일부터 호주 다윈에서 열리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9차 식물위원회에서 야생삼(산삼)을 국제교역규제 품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안서에서 "시

땀독성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에도 천적은 있다. 인간이 합성한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이 '공포'의 물질에도 인삼과 녹차가 예방과 치료 면에서 훌륭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0.69~0.83마리 였으나 홍삼 단독투여군은 1.1마리까지 높아졌다.

한편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박사는 지난 5월 국제녹차 심포지엄에서 '환경호르몬이 정자 운동능력 및 정자수에 미치는 녹차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 "녹차가 다이옥신등

## 다이옥신 피해예방엔 인삼, 녹차 효능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시관 박사등은 최근 실험동물에 다이옥신류 물질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고염제(TCDD)를 투여한 다음 인삼을 먹였더니 생식기능과 생존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TCDD만을 투여한 실험용 쥐는 실험 18일만에 모두 죽은 반면 6년근 홍삼 추출물 투여후 TCDD에 노출시킨 쥐(P), TCDD 투여후 홍삼을 먹인 쥐(C군) 등 나머지는 모두 살아남았고 이들 P,C군의 생존율도 40%에서 70%까지 높아졌다.

TCDD에 노출된 P,C군은 또 수컷 생산능력이 약화돼 새끼 가운데 암컷 1마리에 대한 수컷 비율은

환경호르몬에 의한 여성호르몬 증가를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 다이옥신을 투여한 쥐는 고환과 전립선의 중량이 늘어나고 정자수가 감소했으나 녹차를 음용한 쥐는 장기 무게의 증가가 억제되고 정상군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정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관 박사는 "다이옥신등 환경호르몬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호르몬 피해를 줄일수 있는 생약재 개발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며 연구결과 인삼과 녹차가 다이옥신 예방과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베리아등 극동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야생삼의 보호를 위해 CITES부속서의 교역규제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러시아측이 지칭하는 야생삼과 우리의 수출품목인 인삼

의 학명이 모두 「Panax Ginseng, C.A Mey」로 동일해 인삼도 야생삼과 함께 국제교역이 금지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일대에 자생하는 오갈피등 인삼 유사 약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우회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보따리무역상 농산물 반입 '휴대품 통관 규정' 엄격 적용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국제여행객을 이용하는 보따리 무역상들의 무분별한 농산물·한약재 반입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이를 위해 우선 한·중 국제여행객을 이용한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kg이상(작은 1kg이상)이거나 현지 구입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량 유치키로 했다.

또 한약재에 대해서도 현지 구입가 10만원, 품목당 3kg(인삼은 300g)이하라는 면세통관규정을 준수해 집

행토록 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유치 물품의 총 중량이 30kg이상씩 되는 여행자의 경우 감시대상자로 지정, 특별관리한다.

또 휴대품 면세규정을 악용해 입국검사장 안에서 농산물등 휴대품을 다른 사람에게 분산시켜 부당하게 면세받는 여행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한편 물품반입량 초과로 세관에 유치된 농산물을 포함한 여행객 휴대품은 올 1~4월 모두 1백63만8천여 kg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 시호 60t, 산수유 40t 반입결정 생산자단체와 약정서 체결 조건

국산한약재 시세가 큰폭의 오름세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어 수급에 차질을 낳고 있다는 수요자 단체측 건의에 따라 수급조정위원회는 최근 29차 회의를 열고 시호 60t, 산수유 40t을 수입키로 결정했다.

당초 수요자 단체측에서 수입요청했던 물량은 일천공 150t, 목단 80t, 산수유 50t, 황금 50t 등으로 총 530t 이었으나 시호와 산수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국내 소요량에는 큰 차질이 없을것이라는 분석아래 시호, 산수유만을 수입해 오기로 결정한 것.

수입시기는 국내산 수확

시기를 고려해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이다.

또 수입약재 반입으로 인한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해발생시는 수요단체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전량 구매해 줄것을 골자로 한 약정서를 생산자단체인 생약협회와 체결, 수입추천서에 첨부토록 했다.

한편 제26차 수급조정위원회에서 99년도 하반기 수급용으로 반입을 결정한 지황 500t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산 지황 및 수급조정용 수입지황의 미인수분 등 재고량이 상당량 남아있어 수입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